2021년 9월 5일 (녹) 연중 제 23 주일(나해) 순교자 성월 NO. 1277

서울 서소문 순교 성지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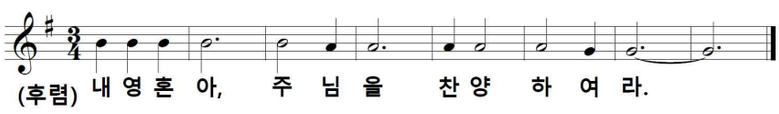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 35,4-7ㄴ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제 2 독서] ..... 야고 12,1-5

[복음환호송] .....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7,31-37

[성가안내]

- 입당성가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176] 믿음 소망 사랑
- 파견성가 [283] 순교자 찬가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안길자 세실리아	전보나
이규정 (영원한 안식을 위해)	이은경
김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유일영 라파엘	유대건 미카엘
생미사	**봉헌**
남승례 아가다 (건강 회복 위하여)	이은경 헬렌
임유진 나자로	임노엘 루까
전마지 마가렛	익명
최은자 세실리아, 고현실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9월 5일	이은경 헬렌	박기목 알버트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9월 12일	채봉석 그레고리오	백이백 아오스딩	고은경 모니카	백이백 아오스딩	민덕미 안젤라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공지사항

1. 주일 미사 중 "마스크 착용" 꼭 해 주십시오.

- 주일 미사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9.1 드보라 9.2 라헬 9.3 그레고리오 9.4 모세
9.7 레지나 9.8 성모님축일
9.13 요한크리소스토모 9.16 고르넬리오 9.20 한국 성인
9.21 마태오 9.23 테클라, 오상의 비오
9.26 고스마, 다미아노 9.27 빈첸시오 9.28 리오바
9.29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9.30 예로니모

● 공동체 설립 기념 추진 위원회 제5차 모임

오늘, 9월 5일 미사 후 2층 교리실에서 있습니다.

● 2022년 달력에 광고 신청 받습니다.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는 해 달력 광고 신청 받습니다.
선착순 10분! 신청 마감 : 9월 12일 / 광고비 : $100

● 9월 19일 주일, 추석 합동 위령 미사 봉헌합니다.

올해 한가위는 9월 21일(화)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미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성당 입구에 있습니다.
연령회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9월 12일까지 받습니다.

●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찾습니다.

9월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주일학교 일정이 돌아간다는 가정 아래 미래 교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신앙생활과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 해 줄 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문 의 : 김 가연 크리스티나
연락처 : 347-882-2244

● 예비자 교리반 시작 공지입니다.

- 교리 시작 : 2021. 9. 19. 주일 미사 후
- 신 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내 주세요.
- 세례 예정 : 2022년 4월 17일 - 부활 대축일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순교자 성월 기도]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우리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우리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김동희(헬레나)**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진정은(마리아)**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프란치스코)**
이병국 (요한)	**이진자(세실리아)**

[2021년 9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양식

우리 모두가 검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양식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이를 위하여 확고히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코 7,31-37)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10,17)라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열정은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하느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 가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듯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시며 그의 귀를 열어 주시고 묶인 혀를 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 세상 것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을 키워 올바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귀여겨들음으로써 믿음을 키워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귀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입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 신우식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거짓의 심리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따질 때 얼마나 믿음이 가는가, 즉 거짓의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물건을 사면서 속아본 이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불쾌감을 느껴 보셨을 겁니다.

거짓은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끕니다. 그런데 거짓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거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부모님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야단을 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도 이상으로 아이를 야단치는 경우 자기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이 습관이 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강변을 합니다.

성당에 가끔씩 사기를 치는 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 눈동자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속을 알겠냐'는 듯한 눈빛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안에서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등에 음산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밝으면 몸에서 밝은 기운이 나는데 마음이 어두우면 몸에서도 음산하고 어두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얼굴 표정으로 아무리 연기를 능숙하게 해도, 달변으로 사람을 홀려도 눈과 등에서 나오는 기운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거짓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을 파멸시키고 영혼을 악의 노예로 만들기에 거짓이라는 도피처로 도망가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아재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한 정직한 신부의 푸념입니다.
난 정직한 신부다. 유아영세 후 신자들이 "우리 아기 예쁘죠?"라고 하는데 이 신부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 무 말도 안했다. 근데 왜 나를 보면 눈을 흘길까? 어떤 자매가 "우리 며느리 될 아이예요. 미인이죠?"라고 해서 "그건 모르겠고 후덕하게 생겼네요~"라고 폼 나게 말해 줬는데 며느리 된다는 처자가 나를 볼 때마다 눈을 흘긴다. 지 분수를 모르고! 정직한 게 탈이다.

신자가 "우리 아이 성공하겠지요?"하고 묻길래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고 말해줬다. 그런데 왜 가족 전체가 냉담할까? 사실대로 말한 게 잘못인가 보다. 난 정직한 신부다. 그래서 신자들 모임에서 나만한 본당 신부 만난 것 은총으로 여기라고했는데 왜 다들 헛기침하며 똥 씹은 얼굴들일까? 여긴 내 수준에 안맞는 곳인가 보다. 근데 신자들이 왜 날 보고 혼자 살길 잘했다고 하는 걸까? 하긴, 한 여자와 살기엔 내가 봐도 내가 아깝다. 그런데 왜 이리 속이 불편할까?